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독재에 대항한 4·19혁명 - 이승만 대통령

4·19 Revolution Against Dictatorship - President Lee syngman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독재에 대항한 4·19혁명 - 이승만 대통령

4·19 Revolution Against Dictatorship - President Lee syngman



1945년 8월 15일 오랫동안 염원했던 광복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남한과 북한은 극한 이념 대립을 거듭합니다.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민주 정부

남한과 북한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정부인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주화의 희망도 잠시, 다른 비극의 시작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3년간

지속됩니다.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산업 시설이 파괴되는 등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피해는 이념 문제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적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참화 속,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 야욕

1950년 7월 부산의 피난 국회

한국전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실망한 국민은 전쟁 발발 직후 실시된 제2대 총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 개정안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계엄령 선포 그리고 발췌 개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1952년 5월 25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헌법 개정안은 다시 표결할 수 없지만, 헌법 개정안을 일부 고쳐 재투표를 시행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 내용을 여기저기에서 뽑아서 만든 것이라 하여 **발췌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또 한 번의 불법적 개헌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은 3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시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제한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 인원수 136명에서 1표 모자란 135표가 나와서 **부결**됩니다. 그러나 이를 후 원래 통과 인원수가 135.33333이므로 소수점 이하는 버려야 한다는 **사사오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억지 논리를 내세워 헌법 개헌안 부결을 무효로 합니다.



1960년, 이승만 영구 독재를 꿈꾸다

1960년 이승만은 다시 제4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병으로 갑자기 죽자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통령에 자신의 후계자인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공무원과 경찰들에게 부정 선거를 지시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3월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부정 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선거에서 3~5인조 공개 투표, 사전 투표, 투표함 교체, 부정 개표, 개표 시 야당 참관인 저지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월 15일 선거는 이미 선거 전부터 부정 선거임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당일인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선거 다음날, 마산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시위 군중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실종된 줄 알았던 마산 상고 1학년 학생인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신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산에서 이승만 정부의 폭정과 부정 선거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이승만 정부와 부정 선거를 비판하는 시위를 일으킵니다. 서울에서도 고려대 학생 3천 여 명이 이승만 정부와 3·15 부정 선거를 비난하는 시가 행진을 벌입니다. 그런데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이승만 정부의 지원을 받던 대한반공청년단 소속의 폭력배들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동아일보에 보도되면서 다음날 4·19 혁명이 일어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인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였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만 104명이 사망하는 등 하루에 123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시위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지만,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은 부정 선거 시정 요구를 넘어서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합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탈당하고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취소하는 등 정치적 수완을 동원하여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 서울의 대학 교수단이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라며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시민과 학생들이 대거 합세하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시위가 퍼지자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을 떼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 저항으로 정권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첫 승리 4·19혁명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4·19혁명을 주도한 것은 학생들의 힘이었습니다. 시위에는 대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하였고 어린 학생들의 의기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날 이후

4·19 혁명의 성공 이후 민주적인 방법으로 장면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도 못 되어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4·19 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사건입니다.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은 4·19 혁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탐구 과제

-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과 4·19혁명에 대해 알아보시다.

관련 단위

- 초등학교 5~6학년군 -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 중학교 1~3학년군 -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현대 세계의 전개



통어 정리

총선거 :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휴전 협정 : 1953년 7월 27일에 한국전쟁을 중지하기로 유엔군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

야당 :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

계엄령 : 전쟁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됨.

부결 : 의논하던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하야 : 관직을 그만두거나 정치 세계에서 물러남

5·16 군사 정변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사건